

보도시점 2026. 7. 5.(일) 11:00  
7. 6.(월) 조간

배포 2026. 7. 3.(금) 16:00

# 농관원 시험연구소,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능력 12년 연속 국제 수준 인정

- 국제공인 숙련도평가 결과 5개 전 분야 ‘Z-score  $\pm 2$  이내’ 만족 판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국제공인 숙련도평가\* 5개 전 분야에서 모두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FAPAS) 잔류농약, (농산물)중금속, 곰팡이독소, (FEPAS) 병원성미생물  
미국 환경자원학회: (토양)중금속

숙련도평가는 동일한 시료를 전 세계 시험기관들이 분석한 뒤 결과를 비교해 시험기관의 분석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분석값의 오차를 바탕으로 산출한 표준점수(Z-score)가  $\pm 2$  이내일 때 ‘만족’으로 판정된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5개 분야 전 항목에서 12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물질은 생산 단계 농산물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검사 대상이다.

또한, 시험연구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장비·인력 및 분석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 이후 지금까지 연속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보급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관원 최수아 시험연구소 소장은 “이번 국제 평가 결과는 끝이 아니라 기준선”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분석으로 국민 밥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현정 (054-429-7760)
		담당자	연구사	윤혜정 (054-429-7765)